Daily Auto Check 2021. 2. 22(M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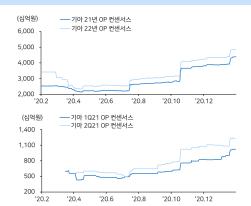


자동차/타이어 Analyst 김준성 02.6454-4866 joonsung.kim@meritz.co.kr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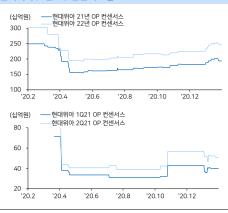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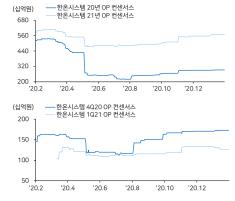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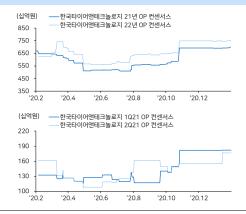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정몽구, 현대차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손 뗀다 (서울경제)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이 마지막 남은 현대모비스 등기이사직까지 내러놓으며 공식적으로 그룹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뗌. 다음달 24일 열리는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에서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날 예정. https://bit.ly/2ZEAghP

현대車 전기차 움직이는 중국산 배터리 (동아일보)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이 현대자동차그룹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3차 배터리 물량의 절반 이상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짐 가격 경쟁력을 갖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려는 현대차의 전략적 선택으로 해석됨.

현대차 · 포드, 보행로봇 · 로봇개 개발 바람… '라스트 마일'이 뭐길래 (조선비즈)

국내외 물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전달하는 마지막 구간, '라스트 마일' 시장을 잡기 위한 모빌리티 업체 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 loT와 자율주행, 로봇 기술이 점목되면서 혁신 가능성이 큰 시장으로 성장 중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19/2021021902757.html?utm_source=naver&utm_medium

애플카 만드는 애플, '라이다센서' 확보 난항 (ZDNet Korea)

애플카를 개발 중인 애플이 다수의 라이다(Lidar) 센서 공급업체들과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19일(현지시 간) 보도함. 이는 애플이 아직 애플카에 사용할 라이다 센서를 확정하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해석됨. https://bit.ly/2ZCRRHe

코나 전기차 리콜 가닥…현대차 · LG 비용 분담 관건 (데일리안)

정부가 코나 전기차(EV) 관련 리콜 방침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은 정부으 에 따라 분담금 협의에 나설 전망이나, 규모가 적지 않은 만큼 최종 합의 직전까지 진통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됨.

기아차 미국법인 랜섬웨어 공격받아…232억원치 비트코인 요구 (연합뉴스)

기아자동차 미국법인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기아차의 커넥티드카 서비스 'UVO' 관련 애플리케이션 등이 마비됐다는 현지

현대모비스, 필름처럼 휘는 차량용 `HLED` 세계 최초 개발 (한국경제TV)

현대모비스는 22일 약 2년여의 연구 끝에 LED 면의 두께가 5.5㎜로 매우 얇고 정지등과 후미등 역할을 동시에 구현하는 HLED를 개발했다고 밝힌. HLED 기술을 바탕으로 향후 글로벌 완성차 공략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

르노 GM 포드 가세…테슬라 독주 전기차 시장 '지각 변동' (매일경제)

글로벌 전기차 후발주자들이 연초부터 무서운 사업 확장 숙도를 보이는 중. 전기차를 공유 서비스나 상용차 시장에 투입하는 등 구체적 계획을 진행 중. 국내에선 현대차를 중심으로 신형 생산 플랫폼을 통해 대대적인 신차 출시도 예고됨. https://bit.ly/3bpVK7D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과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